

불연(佛緣)을 맺는 학회원의 사명

2021년 9월 2일

자타 함께 ‘진검(眞劍)의 한 사람’으로

2년 전, 교외의 역 근처에 타워맨션이 세워졌다. 속속 이사 오는 입주민들 중에도 학회원(學會員)이 있어 새로운 블록(반)이 탄생하게 되었다.

개최된 첫 좌담회. 많은 사람이 첫 만남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으로 쓴 이름표를 달고 참가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디에서 왔는지 등, 전원이 자기소개를 하는 것만으로 예정 시간을 넘겼다. 끝날 무렵에는 박수가 연이어 터져 나왔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다.

새로운 곳에서 사는 것은 불안도 있고, 기대도 있다. 모두가 원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연결고리였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동지를 지원한, 가까운 곳에 사는 장년부원(壯年部員)이 있었다.

혼자 사는 그는 언제나 사람의 고리 속에 있었다. 청년을 찾아 단란(團欒)한 장(場)을 만들어 귀를 기울여주며 때때로 체험을 들려주었다. 자신의 우인의 집이나 친숙한 가게를 향해 함께 걸으면서, 대화가 활기를 띠었다. [이 땅에 이케다\(池田\)](#) 선생님과의 어떤 연(緣)이 있는지, 어떤 광포사(廣布史)를 새겨져 왔는지. 현장감 넘치는 말투로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명을 새로운 동지에게 이어주고 있었다.

얼마 전, 그 장년부원은 거듭되는 암과의 싸움 끝에 영산(靈山)으로 떠났지만, 병상에 누워서도 온라인으로 회합에 참석. 광포(廣布)에 살아가는 존귀한 모습은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다. [모두에게 불성\(佛性\)이 있듯이 누구와도 인연이 있다.](#) 커피를 마시며 좋은 거리를 만들고 싶다고 말한 모습이 동지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

이케다 선생님의 지도(指導)에는 “환경이 어떻든 혼(魂)의 ‘황금성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황금의 인재’만 한 사람 있으면 모든 것을 좋은 방향으로, 행복의 방향으로 열어 갈 수 있다. 이 ‘진검(眞劍)의 한 사람’을 키우고 ‘진검(眞劍)의 한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는 나아가고 싶다.”라고. 지금 장년이 남긴 사람의 연을 다시 맺으면서 새로운 대화확대에 힘쓰는 동지들이 탄생하고 있다.

속담에 “웃깃만 스쳐도 다생(多生)의 인연”이라고. 스쳐가는 사람조차 우연이 아니라 과거세의 숙연(宿緣)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이지만, 연(緣)은 주체적인 행동이 있어야만 살아나는 법이다.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며 맺은 연은 반드시 지역을 밝게 밝혀주는 인(因)이 된다. 거기에서 우연한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되지 않는 감동의 드라마도 전개되어 간다.